대학가 '알바' 중국인 유학생 점령

취업 준비 바쁜 국내 대학생들 기피
일부 언어 마찰·잠적 등 부작용도

광주·전남 대학가 아르바이트 자리에 '중류'(中流) 열풍이 일고 있다. 국내 대학생들이 3D업종 기피와 취업준비로 인해 궂은 일을 기피하면서 중국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광주·전남 대학에 따르면 26일 현재 등록된 유학생 수만 2천500여명. 이중 90% 이상은 중국 유학생이다. 학교별로는 ▲전남대 966명 ▲호남대 622명 ▲조선대 452명 ▲광주대 268명 ▲동신대 168명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학가 주변의 호프집·PC게임방·당구장·음식점·노래방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들이 받는 시간당 급여는 대개 최저임금 3천770원 보다 훨씬 낮은 2천500원~3천원 선이다.

전남대 주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는 70여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호남대 구내식당 자리는 이미 중국인 유학생 5~6명이 차지했으며, 조선대와 광주대 주변 가게에서만 아르바이트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략 100여 명에 달한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대학생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아르바이트 대신 도서관이나 학원가로 발길을 돌린 데다 보수는 적고 힘든 업종의 일은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대학가 주변 PC게임방 등 가게들은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조선대 후문 주변 한 호프집 주인은 "최근 국내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열중하면서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우리 가게를 포함해 대학가 주변 가게 상당수가 중국인 유학생 없으면 장사하기가 힘들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등 돈을 벌기 위해 잠적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올들어 광주·전남지역 각 대학이 무단 이탈한 외국인 유학생을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건수는 159명. 지난 한해 동안은 모두 225명에 달했다.

또한 언어 소통 문제로 손님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24일 친구들과 함께 전남대 후문 호프집을 찾은 Y씨 일행은 주인과 말싸움을 벌였다. 자신들이 주문한 것과 달리 술과 안주가 훨씬 많이 나온 것이다. Y씨 등은 주인에게 이를 따졌고, 주인은 종업원인 중국인 유학생이 주문한 메뉴를 잘못 받아 적어 생긴 문제라고 사과했다.

조선대 후문에서 호프집을 하는 김모씨는 "언어소통 문제로 가끔 어려움을 겪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겐 '중국인 유학생입니다'라고 적힌 명찰을 달도록 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시키는 일은 곧잘 하기 때문에 이들을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해커 공격 시달린 광주환경운동연합

결국 홈페이지 폐쇄

해커들의 공격으로 홈페이지의 일부 자료가 삭제되는 등 피해를 입었던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계속된 해킹으로 인해 결국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광주환경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해커들의 공격으로 인해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데 이어 계속되는 해킹으로 최근 홈페이지를 전격 폐쇄했다. 뿐만 아니라 환경연합의 52개 각 지역별 조직 가운데 자체서버를 두지 않은 42개 조직 홈페이지도 모두 일제히 문을 닫았다.

매년 1~2차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왔던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는 지난 9월부터 더욱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1년 6개월치의 자료가 삭제되기도 했다.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침투한 해커들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출입을 유도하는 해킹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한 해커가 데이터를 대량 저장한 드라이브(파티션) 자체를 삭제해버린 데다 시스템 이용 흔적인 로그파일을 모두 삭제해 환경련은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연합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지만 많은 해커들이 침입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홈페이지 대신 대형 포터사이트의 카페 등을 이용해 당분간 행사 및 소식 등을 전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 자체 서버를 둔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 방침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나운찬 〈7663〉 김종두

"최강 특전용사 찾아라"

특전사 황금박쥐부대는 26일 담양군 부대 안에서 최강의 특전용사를 선발하는 전투스포츠 문화축제인 '2008 SF 밀림픽(Special Force Milympic)'을 개최했다. 대회에 출전한 특전사 장병들이 동료를 업고 달리는 게임을 벌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발전기 물품 중과세 잘못" 판결

수입업체들 수십억 환급받을 듯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발전기 품목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고 중과세한 관세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발전기 수입업체들은 최고 수십억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됐고 유사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방극성)는 26일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메이야율촌전력 등이 광주세관 및 광양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들 업체가 광주세관으로부터 받은 과세처분 규모는 관세와 가산세 등을 합쳐 메이야율촌전력 64억2천여만원, 대림산업 9억7천여만원, 포스코건설 4억2천여만원 등 총 78억원에 이른다.

/최권일기자 cki@

간통 혐의 옥소리씨 징역 1년6월 구형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사진)씨에게 26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옥소리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3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옥씨는 검·경 조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원한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공터 소파 더미서 불 신원 미상 시신 발견

26일 오후 4시3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공터에 쌓여 있던 소파 더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대원들에 의해 2분여 만에 진화됐다.

불에 탄 소파 사이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시신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불을 끈 뒤 잔불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시신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안경 때문에… 성폭행 미수 덜미

쌍나팔

○…시력이 나쁜 30대 성폭행범이 자신이 쓴 안경을 범행 현장에 떨어트리고 가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광주광산경찰은 26일 심야에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 한 이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밤 광주시 광산구 한 농로에서 귀가하던 A(19)양을 뒤따라가 A양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목을 조르는 등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

○…이씨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자신의 안경을 범행현장에 떨어트렸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안경을 토대로 주변 안경점을 탐문해 안경 도수에 맞는 고객의 신원을 파악, 범행 하루만에 범인 이씨를 검거.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 고시원 10곳 중 2~3곳 화재 취약

소방안전 25.4% 불량

고시원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고시원 10곳 중 2~3곳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고시원 소방안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5천254개 고시원을 점검한 결과, 이중 11.8%인 622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 광주는 142곳을 점검한 결과, 25.4%인 10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아 대전(35.8%), 전북(32.0%)에 이어 불량률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8곳)·강원(4곳)·제주(2곳)는 단 한 곳도 불량 판정을 받지 않았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고시원 화재는 2006년 15건, 지난해 26건, 올 10월 말 현재 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고시원 공간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화재가 많은 겨울철을 맞아 소방안전 불량 고시원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